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립자연보호구 「보로니스키」 습지에 새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조사

- 1 자치단체명 :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지방
- 2 발표자명 : 마카린 · 안드레이 (Makarın Andrei)
아무르스크시립 보족(補足) 교육시설 「자연애호가」 청소년 환경 · 생물 센터 7 학년
- 3 활동기간 : 2018 년 조사결과 정리
- 4 활동장소 : 하바로프스크지방 아무르스키지구
- 5 활동참가인원 : 30 명 (소년환경탐험단 「포르미카」 (Formika) 참가자)
- 6 활동을 시작한 경위 : 스투드네 · 아무르스카야저지에 위치해 있는 모든 습지에서 새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 환경상황조사 일환으로 시작했다.

7 발표요지 :

하바로프스크지방에는 많은 물새가 서식하고 있는 습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습지는 독특한 기능을 갖고 많은 민족들의 생활양식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습지는 약용식물의 특별한 기원이 되고 있다. 습지는 식물과 동물의 다양성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스투드네·아무르스카야저지 (Sredneamurskaya) 는 러시아연방 극동지방의 남부에 위치하고 다수의 침수(冠水)초원, 습지, 이탄지(泥炭地), 담수호, 개울, 하천, 수로가 있다.

※이탄지(泥炭地)-습원식물 등이 고사(枯死) · 퇴적하여, 부분적으로 분해·탄화작용이 행하여진 토괴(土塊) 모양의 것

소년환경탐험단 「포르미카」 (Formika) 멤버는 수년에 걸쳐서 스투드네·아무르스카야 저지 동북부에 위치해 있는 볼론호수(Bolon) 와 그 주변 습지를 조사했다. 주요 조사대상은 이곳에 서식하는 물새와 이동시기에 방문하는 철새이다.

볼론호수는 보로니스키국립자연보호구 안에 위치하며 그 면적은 338km²이다. 볼론호수에는 하르피강(Harpi) , 세미강(Semi), 세무뉴르강(Semnyur) 을 포함해서 49 개의 강이 흘러 들어온다.

스투드네·아무르스카야저지의 습지에는 300 종류의 식물이 존재하며, 그중에서 5 종류는 러시아연방과 하바로프스크지방의 레드데이터북에 기재되어 있다.

대표적인 동물로는 양서류 및 파충류가 11 종류, 어류가 52 종류, 조류가 179 종류, 포유류가 40 종류이다.

습지의 쾌적한 환경 덕분에 조류의 다양성이 높고, 집중적으로 그 주변에서 둥지를 만들고 있다. 철새의 이동시기에는 이곳에 약 120 만마리의 조류가 모여들고 있다. 아무르강(Amur) 주변 및 극동지방 남부에 서식하는 대부분의 조류를 이곳에서 볼수 있다.

179 종류의 새들 중에서 황새(Oriental stork), 흑두루미(Hooded crane), 두루미(Red-crowned crane), 개리(Swan goose), 흰이마기러기(Lesser white-fronted goose), 참수리(Steller's sea eagle), 넓적부리도요(Spoon-billed sandpiper) 의 7 종류가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보로니스키국립자연보호구 안에서 황새둥지가 51 개 확인되었다. 그 둥지중에서 15 개가 인공기둥쪽에 존재했다. 소년환경탐험단 「포르미카」 의 관찰결과에 의하면 보호구에 서식하는 황새의 개체수는 안정되어 있다고 한다.

황새를 포함한 자연계의 조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구 및 천연자연공원을 늘리거나 인공기둥을 설치하거나 삼림화재를 없애는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보로니스키국립자연보호구 및 스투드네·아무르스카야저지의 습지는 물새조사 관점에서 국내외의 생태학자, 조류학자, 에코투어(생태관광)들에게 관심이 높은 장소이다.

우리들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지만 각자의 나라에도 반드시 이러한 특별한 습지가 있을 것이다. 그 습지를 보전하는 것으로 지구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